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86

▶ 87회 예고
우빠굽따는 아쇼까왕에게 바라나시 근교의 추나르 사암 채석장을 말한다. 이때부터 칙령이 새겨진 추나르 사암 석주는 전국으로 퍼진다. 또한 우빠굽따는 아쇼까왕에게 석주에 얹히는 사자, 말, 코끼리, 법륜 등의 뜻을 설한다.



목갈리뿟다띳사, 아쇼까라마를 떠나다

보드가야 순례에서 돌아온 아쇼까왕은 한동안 붓다가 위없는 깨달음을 이룬 그 자리의 삡팔라 나무를 잊지 못했다. 과거의 왕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몹시 흡족해했다. 할아버지 짠드라굽따왕이나 아버지 빈두사라왕은 순례보다는 사냥이나 오락을 즐기기 위해 왕궁을 나섰던 것이다. 아쇼까왕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앞으로 나는 순례하는 동안 담마의 실천자로서 사문이나 브라흐민들을 만나면 보시를 하리라. 늙은이나 가난한 자들에게도 보시를 하리라. 백성들을 만나면 담마를 알리고 담마의 근본을 얘기하리라. 나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될 테니까. 어떤 즐거움도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으리.'

그런데 그때 마힌다가 아쇼까왕 집무실로 들어왔다.

"장로여, 무슨 일이오?"

마힌다는 출가한 뒤 3년 동안 목갈리뿟다띳사에게 경, 율, 론 삼장을 배워 장로의 지위에 올라 있었다.

"대왕님이시여, 목갈리뿟다띳사 장로님께서 꾸띠를 청소하고 계십니다. 아쇼까라마를 떠나시겠다고 합니다. 저에게 아쇼까라마를 맡으라고 하시지만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우빠굽따 장로가 와 있기 때문이오?"

"그건 아닙니다. 두 분은 사이가 아주 좋으십니다."

"내가 순례하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오?"

"이전부터 있었지만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마힌다는 아쇼까라마 내부사정을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목갈리뿟다띳사가 책임을 지고 떠나려는 마당에 더 이상 침묵하는 것은 이교도들의 잘못된 행태를 묵인하는 행위라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대왕님이시여, 6만 명이 머물고 있는 아쇼까라마에는 불교 사문보다 이교도들이 더 많습니다."

"얼마나 많소?"

"이교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장로님들이 관용을 베풀어 왔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교도들이 사문에게 예의를 지켰지만 지금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마힌다의 보고는 사실이었다. 왕족과 브라흐민들이 불교로 귀의하여 많은 이익과 명성을 누리자, 이교도들의 설 자리는 차츰 없어졌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아쇼까라마로 오지 않을 수 없었다. 아쇼까라마에서 공양은 물론 의복을 제공하고 병들었을 때 치료까지 해주었으므로 그들에게는 지상낙원이나 다름없었다. 그들은 아쇼까라마에서 주는 노란 가사를 입고 사문 행세를 하면서 붓다의 가르침을 헐뜯기까지 했다. 아쇼까왕이 마힌다에게 말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오?"

"우뽀사타 법회에 성스럽고 지혜로운 장로들이 참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뽀사타(Uposatha)란 포살법회를 뜻했다. 매월 1회 출가자와 재가자들이 참여하는 참회법회로 계율을 외우거나 장로의 설법을 듣는 전통 불교의식이었다.

"이교도들이 우뽀사타 법회에 참석하여 법회를 방해하는 언동을 일삼아 왔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무엇이오?"

"빠와라나 법회에 장로들이 참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빠와라나(Pavarana)란 자자법회를 뜻했다. 수행자들이 우안거가 끝나는 날에 우안거 기간 동안 저지른 잘못을 서로 지적하고 참회하는 의식이었다.

"빠와라나 법회 때도 이교도들이 참석하여 계율을 훼손하는 언동을 해왔습니다."

아쇼까왕은 크게 실망하여 얼굴빛이 어두워졌다.

"그동안에 목갈리뿟다띳사 장로는 무엇을 했다는 말이오? 수석장로라면 아쇼까라마의 질서를 바로 잡았어야지요."

"율사이신 목갈리뿟다띳사 장로님은 누구보다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비로운 분이어서 나서지 않고 자정이 되기를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아쇼까왕이 말했다.

"그래도 내가 믿는 장로 중에 한 분인데 어떡하겠소. 가시는 것을 만류하시오. 어서 가서 목갈리뿟다띳사 장로를 데려오시오."

"예, 대왕님. 장로님을 모셔오겠습니다."

마힌다는 서둘러 아쇼까라마로 향했다. 아쇼까라마는 여전히 삼지창 같은 장대를 어깨에 메고 다니는 이교도들로 북적거렸다. 마힌다는 아쇼까라마 비하르를 지나 목갈리뿟다띳사가 머물고 있는 꾸띠로 걸어갔다.

그러나 꾸띠는 텅 비어 있었다. 목갈리뿟다띳사는 이미 떠나버리고 없었다. 마힌다가 아쇼까왕 집무실에 있을 때, 목갈리뿟다띳사와 사문들이 우뽀사타(포살법회)와 빠라와나(자자법회)를 중지하기로 결의한 뒤 강가강으로 내려가 버렸던 것이다. 마힌다가 한 사문을 붙들고 물었다.

"목갈리뿟다띳사 장로님은 어디에 계시오?"

"방금 사문들과 우뽀사타와 빠라와나를 무기한 중지하기로 선언하신 뒤 떠나셨습니다."

마힌다는 잰걸음으로 강가강 나루터까지 달려갔지만 목갈리뿟다띳사는 보이지 않았다. 뱃사공들에게 수소문해보니 강가강 상류인 아호강으로 가겠다고 배를 탔다는 것이었다.

"목갈리뿟다띳사 장로님을 보지 못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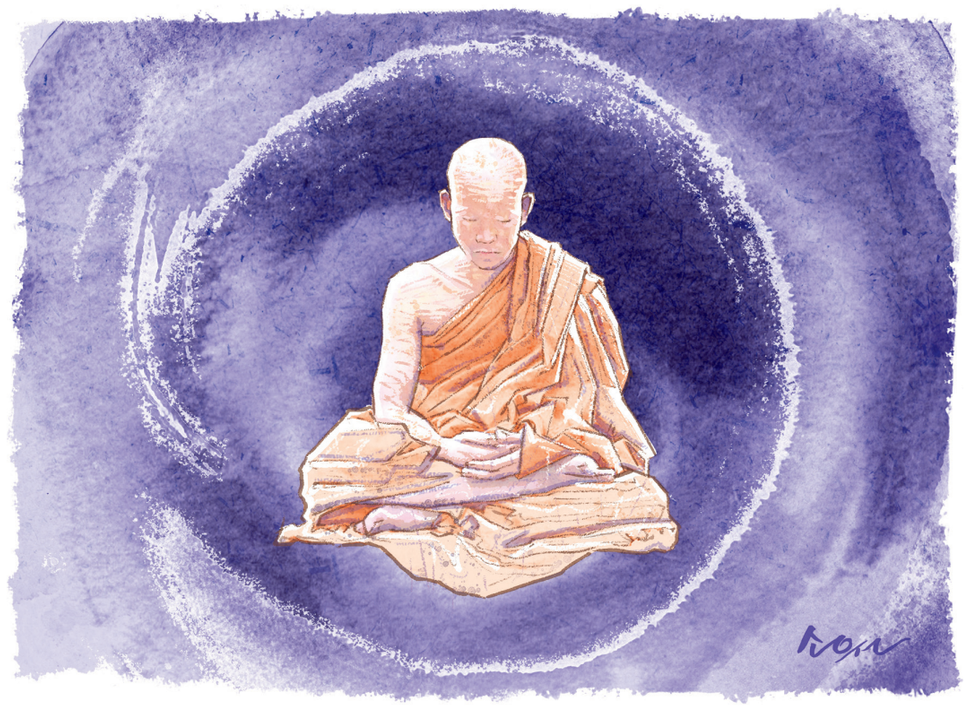
"장로님은 아호강으로 가는 상선을 타고 떠나셨습니다."

빠딸리뿌뜨라에서 아호강으로 다니는 상선은 하루에 한 번 있으므로 뒤쫓아 가려면 내일이나 가능했다. 마힌다는 왕궁으로 돌아와 아쇼까왕에게 사실대로 보고할 수밖에 없었다.

"대왕님이시여, 장로님은 아호강으로 떠나셨습니다."

"사문들에게 남긴 말은 없었소?"

"예, 우뽀사타와 빠라와나를 사문들과 함께 중지하기로 결의했다고 합니다."



"떠난 장로를 붙잡을 방법은 없소. 장로가 돌아올 때까지 우리 힘으로 아쇼까라마를 정화할 수밖에 없소."

"대왕님시이여, 아쇼까라마가 정화된다면 목갈리뿟다띳사님이 돌아오실지도 모릅니다."

"나는 백성들에게 담마 칙령을 내려 정화할 것이오. 마힌다 장로는 아쇼까라마 이교도들을 정화하시오."

아쇼까왕은 떠난 목갈리뿟다띳사를 포기했다. 아호강으로 마힌다를 보낼 생각도 하지 않았다. 아쇼까왕은 가장 온건한 방법을 선택했다. 아쇼까라마를 정화하고 나면 목갈리뿟다띳사가 돌아올 수도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문들이 포살법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당장의 문제였다. 아쇼까왕은 마힌다에게 말했다.

"장로시여, 나는 사문들이 우뽀사타에 참석하지 않는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하오. 내 명령을 사문들에게 전하시오. 사문들이 우뽀사타에 참석하여 종교 간에 화합을 도모해야 된다고 전하시오."

"예. 그런데 대왕님이시여. 사문들이 목갈리뿟다띳사 장로님 앞에서 우뽀사타를 중지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나의 명령을 어기면 누구라도 극형에 처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하오."

아쇼까왕은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예, 대왕님."

아쇼까왕의 명을 받은 마힌다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 사문들을 모아놓고 아쇼까왕의 명령이라며 앞으로는 우뽀사타에 참석하라고 전하기는 하겠지만 자신이 나서서 강요할 생각은 없었다. 스승 목갈리뿟다띳사가 결의한 사항을 제자인 자신이 뒤엎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아쇼까왕은 자신의 명령이 지켜지는가를 보기 위해 마하마따 한 명을 아쇼까라마에 파견했다. 마하마따란 우뽀사타에 참석하여 아쇼까왕의 명령이 집행되는지를 감독하는 담마 대관을 뜻했다.

아쇼까왕은 마하마따 파견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붓다의 가르침은 물론이고 아쇼까왕의 담마정책이 효율적으로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였다. 잠부띠바 각 지방에 마하마따 사무소를 두어 그곳에서 붓다의 가르침을 알리고, 더 나아가 의료, 복지 등의 일을 관장하게 했다.

그러나 처음에는 아쇼까왕의 명령이 잘 집행되지 않았다. 아쇼까라마만 해도 사문들 중에는 왕의 명령을 받들어 우뽀사타에 참석하는 장로가 있고, 목갈리뿟다띳사의 결의를 지키고자 완강하게 반대하는 장로가 있었다. 마하마따가 보고하자 아쇼까왕은 격노했다.

"내 명을 어기면 사문이라도 극형에 처하시오."

"감옥으로 보내 사형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오."

아쇼까왕은 '승가의 보호자'이자 '담마의 실천자'라는 자부심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기 때문에 승가의 화합을 위해 승가를 분열하는 자는 용서할 수 없었다. 마하마따는 우뽀사타에 참석하지 않는 사문과 장로들을 지옥궁전이라 불리는 감옥의 전옥(典獄) 전타기리가에게 보냈다. 그러면 전타기리가는 그들을 사형 집행장으로 보내 처형했다.

하루는 띳사꾸마라 장로도 여러 명의 장로와 함께 감옥으로 압송돼 왔다. 띳사꾸마라는 아쇼까왕의 친동생 비가따쇼까였다. 띳사꾸마라는 출가하여 얻은 그의 법명이었다. 다행히 마하마따는 띳사꾸마라를 알아보고 아쇼까왕에게 보고했다. 아쇼까왕은 즉시 띳사꾸마라를 집무실로 불렀다.

"띳사 장로여. 어찌하여 하나뿐인 동생을 내가 처형해야 한다는 말이오!"

"대왕님이시여. 붓다께서는 내가 남에게 살해당하는 것을 싫어하듯이, 남들도 나와 마찬가지니, 살생을 하지 말라, 고 하셨습니다. 대왕님은 담마의 실천자입니다. 그런데 대왕님은 무슨 까닭으로 살생을 하십니까?"

"내가 명령을 내린 것은 승가의 화합을 위해서였소. 우뽀사타의 참석을 놓고 승가가 분열하고 있으니 내가 나선 것이오."

"그렇다고 하더라도 승가를 보호해 왔던 대왕님께서 담마를 수호해 왔던 사문을 죽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

아쇼까왕은 띳사꾸마라의 말에 승복했다. 그의 짧은 설법에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오! 띳사 장로의 말이 맞는 것 같소. 마하마따에게 지시하겠소. 나는 오늘부터 내 명을 거역했다는 이유로 살생하는 것을 멈추게 하겠소."

"대왕님은 진정한 담마의 실천자이십니다."

"나는 이미 동생 장로가 출가 전에 내게 선물했던 칼을 다야강에 버린 왕이오. 그 자리에서 나는 담마로 세상을 정복하기로 맹세했소."

"훌륭하십니다. 대왕님이시여."

아쇼까왕은 즉시 전옥 전타기리가를 불러 감옥에 있는 장로들을 다 풀어주라고 지시했다. 이 소식을 들은 마힌다 장로는 마하마따 대관을 불러 부탁했다. 마하마따는 마힌다가 아쇼까왕의 아들이란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든 다 들어주었던 것이다.

"대관이시여, 아쇼까라마 경내에는 이교도들의 상징물이 많습니다. 일단 이것들부터 제거해 정화시켜주시오."

"장로님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교도들이 설치한 요니와 링가, 불의 제단부터 당장 치우겠습니다."

"대관님의 수고를 대왕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즉 정화했어야 할 일입니다."

마힌다는 사문들이 우뽀사타에 참여하고 경내가 정화되기를 서두르지 않고 기다렸다. 어느 정도 정화가 된다면 아호강가에 은둔하고 있는 목갈리뿟다띳사를 찾아가 다시 아쇼까라마로 와주기를 간청할 생각이었다.〈계속〉

